

잘 짜여진 형태 속의 성숙한 울림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낸 정희성씨

중견시인 정희성(47)씨가 13년만에 비로소 세번째 시집을 선보였다. 그의 나인 서른이 조금 넘던 지난 78년 「저문강에 삼을 씻고」를 펴낸 이후 이제야 겨우 그동안 간간히 지면에 발표해왔던 시들, 모두 50여편을 한데 모아 묶은 것이다. 이 인색하기 이를 데 없는 시인의 최근 시집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창작과 비평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간되자마자 대형서점 시집부문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등 매우 이례적인 환대를 받고 있다. '이례적'이라 함은 10년 넘는 세월의 공백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독자가 그를 잊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어 그렇고, 또 대형서점 시집 베스트셀러 목록의 특성과 이 시인의 성향이 매우 상이함에도 그 아성을 무너뜨린 데서 그렇다.

“원래 과작이기도 하지만 80년대 들어서는 도무지 시를 쓸 수가 없었어요. 80년 5월의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기 어려웠기도 했고, 새롭게 등장한 많은 시인들과 많은 양의 시 가운데 내 한 목소리를 더해 보았자 무슨 보탬이 될까 하는 회의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80년 이후 현장에서 생산돼 나온 작품들이 늘면서 그들의 삶을 시로써 고발해왔던 나로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새로운 고민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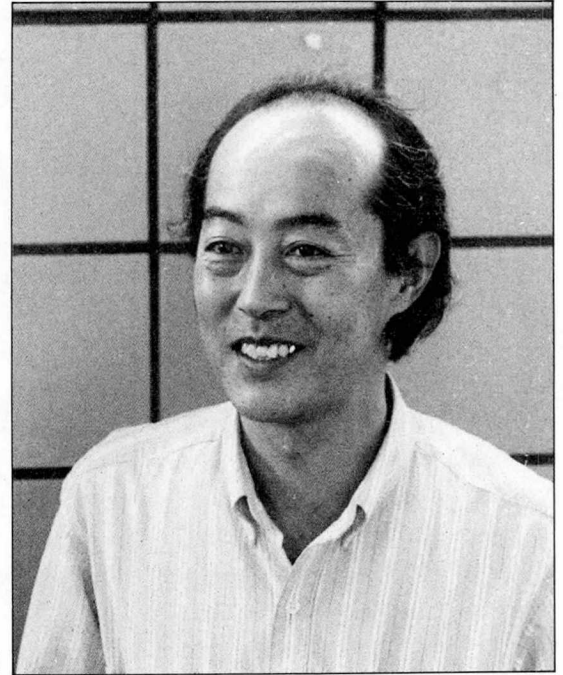
지난 7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變身」이 당선되면서 등단한 그는 절박한 서정을 신라향가의 형태로 재현한 첫시집 「踏靑」(74년) 이후 시대의 모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시 세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일용노동자, 가난한 농민, 여성근로자, 화전민 등 필박받는

민중들이 작중 화자가 되어 자신들의 고통과 분노를 담담히 호소하는 「저문강에 삼을 씻고」(78년)는 현장생산작품들이 거의 드물었던 당시 독자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로써 그는 제1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런 까닭에 70년대 학번이 80년대 후배들에게 물려준 소중한 도서목록 중에는 그의 시집이 반드시 읽어야 할 유산으로 꼽혀 있었다. 창백한 지식인의 문학을 떠나 그 시대 고난받는 사람들의 삶속으로 침투해 들어갔던 그는 80년대 이후, 그가 바로 대상화했던 민중들이 문학작품의 생산주체로 성장하는 데 교량역할을 톡톡히 해놓은 그 때문에 새로운 고민에 맞닥뜨린다. 이번 시집은 그런 점에서 그같은 고민의 극복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주머니를 뒤지니 동전이 나온다 / ... / 동전 밖에 없어 갈곳은 없고 / 갈곳없어 아득하여라 / ... / 신문에 나온 여공의 죽음을 보고 동전밖에 없는 제 자신도 잊은 채 / 울먹이는 못난 나는 얼마나 작으나.”(버스를 기다리며 중) 이전 시집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었던 자기고백적 이야기를 이번 시집에서는 수월찮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청명」과 같은 시에서는 젊은 시인들이 통곡하고 절규할 내용을 9행의 짧은 시에 정제하여 성숙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이번 시집에서 “부끄러움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었다”는 그는, 그럼에도 초기시 이래로 시인의 시적 세계를 특징짓는 절제되고 잘 짜여진 형태의 미덕을 잃지 않고 더욱 잔잔해진 삶의 결속에 오직 그만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낫지만 매운 목소리에 담아내고 있다.

“知己들은 나의 시를 가리켜 뽕뽕 막혀 답

답하다고도 하지만 형태에 파격을 주고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또한 한번 쏟아낸 말은 언제나 나를 읊아내는 족쇄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게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정희성씨

답하다고도 하지만 형태에 파격을 주고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또한, 한번 쏟아낸 말은 언제나 나를 읊아내는 족쇄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게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는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난 뒤 7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崇文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있다. 지금도 아침 6시10분이면 지하철로 학교에 출근하고, 집에도 고1 고3 두 남매를 둔, 꼬장꼬장하기로 소문난 이 교사시인은 훈장생활 20년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시가 별로 많지 않다.

“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을 몰개성화시키고

비인간화하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 어떻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마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절로 목소리가 높아져 시로 써내기가 힘이 듭니다. 써도 훈장티가 나서 싫고요 시는 그 자체가 교육적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시 과작인 것 같습니다.”

— 정혜옥 기자

다물기획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 표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성이 가득한 책을 만듭니다. ”

좋은 책은 알찬 내용과 창조적인 디자인과 독자와의 즐거운 만남입니다. 표지디자인 뿐만 아니라 본문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도 독자를 배려하는 정성이 넘칠 때 좋은 책이 주는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다물기획은 좋은 책과 보다 많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찾는,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모인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10-83 전화 : 292/4546, 294/9639 Fax : 294/6443

각종 지류(紙類) 도매 소매

高麗紙業社

● 서적지 ● 모조지 ● 아트지 ● 엠보싱지 ● 레자크지

고려지업사는 단행본 출간에 필요한 모든 종이를 다량 확보하여 소량의 종이도 최선을 다해 보급해 드리는 데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수기가 되면 제지회사로부터 감수해야 했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대중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서적출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수표동 47-6 천수빌딩 807호 전화 271-2581, 2 팩시밀리 269-8890